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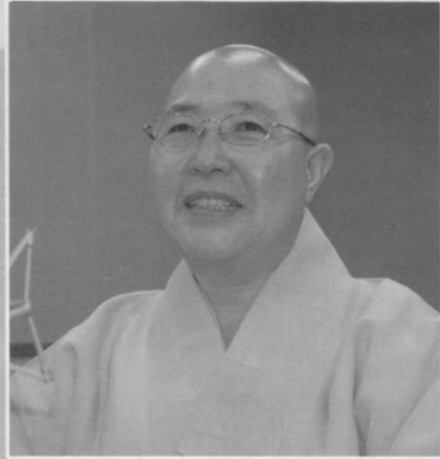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마흔여섯번째>

성정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기도와 발원
- 일시 : 불기2551(2007)년 2월 10일(토) 14시 30분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성정스님 약력]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역임
現 여주 보륜사 주지
現 불교방송 신행상담 진행
現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섭외부장
現 대한불교조계종 14대 종회의원



2월 사찰문화 답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삼보사찰 순례)

- 일 시 : 2007년2월 24일(토) ~ 2월 25일(일)•
- 출발지 : 2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8만원
(숙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2월 초



권두선

우리가 지켜야 할 효 문화

조계종 문화예술 전문포교사 권 중 서



정경기불교문화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 팔달문(八達門) 바로 옆에 있어 지리적 으로나 사상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수원을 “효(孝)의 으뜸도시”라 우리들은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효를 도시의 기본사상으로 나타내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다. 팔달문 또한 우리민족의 정체성인 효가 여덟 방향으로 뻗어나가 어느 곳이든 어느 백성에게도 전해져 우리민족의 자랑인 부모 사랑하는 마음(효도)을 드높이고자 한 조선 정조대왕의 효심을 읽을 수 있는 문이 팔달문이다. 그래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세계역사문화에서 유일한 효를 주제로 만든 성곽인 화성을 복원하고자 연차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효원의 도시 수원』을 내놓은 효의 정신적 중심인 『용건릉』과 『용주사』 일대는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옛 자취가 없어지려는 절박함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효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지니고 가꾸어서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느끼는 효의 공간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들은 후세에게 우리나라는 효를 숭상하는 아름다운 민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정조대왕은 비명에 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와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현 화성시 이곳에 아버지 무덤을 모시고 「현릉원」이라 이름 하였고, 그 곁에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용주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아버지 능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축조하였으니 아버지께 대한 효심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하겠다. 화성성역의궤의 화성기적비(華城記蹟碑) 첫머리에 “상(上:정조대왕)의 13년(1789)에 현릉원을 수원부의 화산으로 옮기고 그 읍치(邑治)를 유천으로 옮겼다. 지난 계축년(1793) 상께서 수원에 거동하시어 행궁을 두어 우러러 의지할 뜻을 나타내고 또 수원부에 성을 쌓는 것을 의논하였으니, 그것은 원침(園寢)은 강의 남쪽에 있고 영부(營府)는 원(園)의 북쪽에 있어서 그것을 막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의 모양은 봄의 버들잎 형상 같으니 그것은 유천(柳川)이란 지명에서 취한 것이다.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 한 것은 원묘(園墓: 사도세자의 무덤)가 화산(花山)에 있으므로 花자와 華자가 서로 통하는 데서 취한 것이니, 모두 성교(聖敎: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시행한 것이다.” 하여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효심은 일찍이 세계사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역사적인 것 인양 자랑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용건릉과 용주사 일대를 깎그리 없애 버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번 훼손된 문화권역은 복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알고 복원코자 할 때에는 개발이전보다 엄청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여야 함을 우리들은 수많은 예를 통하여 알고 있다. 이제는 개발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택지개발을 멈추어야 한다. 이곳 말고도 화성시의 타 지역에 얼마든지 택지개발을 하여 국민주택보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필이면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이 계승 발전되어야 할 이곳에 택지를 개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효심의 극치를 보인 정조대왕의 일이 숨 쉬고 있는 용건릉과 용주사 일대의 공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효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공간이 훼손되기 전에 하루바삐 용주사와 용건릉 일대를 효 역사문화권역으로 지정하여 우리들은 정조대왕의 효 사상을 이어받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효 문화를 실현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용주사뿐만 아니라 화성시, 수원시,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서 효를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4)

백년 동안 다달이 천 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 법구경 106 -

Though month after month for a hundred years one should offer sacrifices by the thousands, yet if only for a moment

one should worship those of perfect minds that honour is indeed better than a century of sacrifice.

- DhammaPada 106 -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기도 성취하는 법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주지/정엄스님

불교에서 기도를 성취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의 위신력(威神力)능력이라 합니다.
기도할 때 올바른 믿음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므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합니다.

마음에서 한치의 의심이나 간격도 없어야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분명히 있어서 기도 중에 가피(加被)를 얻게 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성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장구란 신통묘용의 글구라는 뜻입니다.

신통묘용의 글구란 이 글귀를 외움으로써 신통의 묘한 작용을 불러 일으켜서, 인생의 참된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광명, 해탈, 약왕, 신통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을 읽는 이는 이 같은 종자를 싹 틔어 그 백배, 천배, 만배의 복덕을 수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라니는 여래의 평등심(부처님과 평등한 마음)이고, 무위심(하염없는 마음)이며, 무염착심(더러움이 없는 마음)이고, 공관심(공의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며, 무상보리심(최상의 지혜를 내는 마음)으로서 백천 종류의 삼매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대비신력이 이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 어떠한 장애도 액난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라니를 수지 독송하는 것은 부처님 몸을 감춘 것이고, 자비의 창고를 가진 것이므로 그에게 백천가지 삼매가 갖추어져 신통자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장수하고자 하여 조용한 곳에서 일심(一心)으로 다라니를 외우면 그의 수명 또한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라니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 다양합니다.

(1) 중생구제의 원력이 가득하므로 '광대원만(廣大圓滿)다라니'

(2) 중생구제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애대비(無?大悲)다라니'

(3)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므로 '구고(救苦)다라니'

(4) 중생들의 수명을 장수하게 하므로 '연수(延壽)다라니'

(5) 삼악도의 윤회를 끊게 해주므로 '멸악취(滅惡趣)다라니'

(6) 나쁜 업을 없애주므로 '파악업장(破惡業障)다라니'

(7) 모든 소원을 꼭 성취하게 하므로 '만원(滿願)다라니'

(8) 마음먹은 대로 이루게 해주므로 '수심자재(隨心自在)다라니'

(9) 불도를 이루어 성불하게 하므로 '속초상지(速超上地)다라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청정하게 이대비심다라니를 받아 지니고 온 세상에 전하라. 이 다라니는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다라니는 먼 과거로부터 선근(善根)을 심지 않은 사람이면 이름도 듣기 어렵거늘 하물며 다라니를 수지하고 독송함이겠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의 기도 장소는 불교문화원 법당입니다.

원장님의 원력과 여러 불자님들의 힘으로 지키고 가꾸며 새 희망을 발원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경기 불교

현대트랜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신통이나 기적에 얼매이지 않는 불자

안산불교대학 유마정사/석정명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허브(HERB)라는 글자를 찾아보니 “아름답고 먹으면 몸을 상쾌하게 하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행복을 갖어다 주는 식물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즐거움 보다는 고통이 많고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복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찾는 곳이 사찰이나 교회 같은 종교단체입니다.

이곳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초월적 존재가 계시는 곳으로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며, 소원을 구하면 성취되고 달성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① 건강해지고 싶고 ② 부자 되고 싶고, ③ 권력자가 되고 싶고, ④ 영원히 살고 싶은 중생들의 욕구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기는 것이 초월적 능력에 의한 신통과 기적에 대한 바람이 생기게 되고 신통이나 기적과 같은 영적능력에 사로잡혀 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잘못여기고 스스로 구원받고 가피를 받은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종교적 오류를 시정하고 정법에 의한 수행정진을 위해 ① 수능엄경을 설하시고 오십변마사(오십가지의 잘못된 경계로 인해서 생기는 허망한 경우)를 통해 철저한 경계를 설하셨고 ② 제마와나 수도원에 계실 때 이상한 능력의 소유자인 “완기사”가 죽은 사람의 해골을 두드리고 그 영혼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아맞히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고로 이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여 완기사가 다시는 중생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한 일화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완기사가 부처님과 신통력을 통해 자신이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천안통으로) 다섯 개의 해골을 상위에 준비하시고 알아맞히게 하셨는데(죽생, 귀신, 인간, 천상, 아라한) 완기사는 다섯 개의 해골을 두드리고 다 태어난 곳을 알아맞히었으나 나머지 한 개(아라한의 두개골)는 알지 못해서 찢찢매다가 모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알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니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완기사는 마지막 해골(아라한이 된 해골)의 비밀을 알 욕심으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부처님의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완기사에게 그의 몸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지도했습니다.

몸은 네 가지 요소, 즉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에 의해서 생긴 거짓모습으로 항상(常)하지 못한 고통스런 존재이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번뇌가 깃든 곳이라고 보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정진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완기사는 지난 날 행해왔던 신기한 능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 없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들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친척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더 이상 해골을 두드리서 태어난 곳으로 알아주고 돈벌이나 하는 천박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하며 “아무리 초인적인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나고 죽는 일은 면할 수 없는 일,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최상이며 가장 위대한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저 완기사는 모든 중생의 태어나고 죽는 길을 바르게 알고 어느 것에도 집착함이 없어, 번뇌로부터 멀리 떠나 깨달음에 이르렀으니 나는 그를 청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이제 저 완기사가 가는 길은 천인(天人)도 인간도 알지 못하고 묵지 못한다. 모든 번뇌를 완전히 깨뜨리고 욕망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그를” 청정한 도를 아는 자”라 부른다. 아라한은 무학성자(無學聖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도 익힐 것도 없어서 다시는 윤회의 굴레에 들지 않으므로 육도 중 어느 것에도 태어나지 않고 성불로 가기 때문에 작은 신통력으로는 차후의 거처를 알길 없는 것이다. 이 일화는 범구경 제26장 <브라흐마나의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교화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교묘한 방법을 써서 완기사의 신기한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면서도 그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바른 수행으로 인도하셨고,

둘째는, 완기사가 얻은 것은 마지막 두개골(아라한의 두개골)의 영혼이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그 자신의 번뇌를 여윈 아라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번뇌를 여의고 해탈을 얻는 것이지 기이한 신통이나 초능력을 얻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佛法)은 분명히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이 해탈법만이 우리 중생들의 생(生) 노(老) 병(病) 사(死)와 우비고뇌를 벗어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다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행복과 안락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생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번뇌와 무명을 제거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행복은 무명을 여의 해탈의 청정심에 있을 뿐, 결코 외부적 모양이나 기이한 현상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佛法)은 정견(正見)을 강조하시고 지혜(지혜)를 앞세웁니다. 믿음도 결국은 이 정견과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 세속의 욕구를 채우려는 기복적 믿음이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가르침을 따라 정진 또 정진함으로 성불을 향한 일념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열두 보살과 12지신의 상징(2)

사) 여의륜(如意輪)보살과 말신

(午神) : 인간마다 원하는 바가 많아서 한꺼번에 모든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자재하는 여의주를 만들어 창고에 두었다가 아미타(阿彌陀)부처님의 지시를 받아 환생하는 인간에게도 주고, 또 별나라의 신들에게도 주는 일을 맡은 보살이다. 신들이 이 여의주를 얻으면 신통력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 별나라를 평정하고 모든 마귀를 조복 받으며, 짐승이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인간이 여의주를 얻으면 소망을 이루고 복락을 누리게 된다.

아) 대세지(大勢至)보살과 양신(未神)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나라와 인간 세상을 두루 살펴서 그 실정을 아미타부처님에게 보고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보살이다. 보살은 별나라를 유행하다가 가장 복잡다난한 인간세상을 시찰하고자 지상에 내려와 양신(羊神)이 되었다. 양신(羊神)은 세상을 두루 시찰하여 평온케 하는 개척정신의 보살이다.

자) 십일면(十一面)보살과 원숭이신(申神) : 무수한 별나라의 신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별들의 성격과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11개의 각각 다른 얼굴을 지닌 보살이다. 슬픈이와 기쁜이에게 각각 맞는 얼굴로 대하여 고뇌를 벗겨주고, 기쁨을 함께하여 막힘이 없는 가장 원만한 보살상이다. 수만 수억 개의 얼굴들이 있는 인간세상에 내려가 그 얼굴을 다 접하여 평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원숭이신이 되었다.

차) 군다리(軍荼利)보살과 닭신(酉神) : 별나라마다 혼란을 일으키는 마귀들을 무찌르고, 선을 지키는 보살이다. 울타리가 없는 별나라에서 마귀의 침입을 막는 일은 매우 힘들다. 특히 인간마다의 마음으로 스며드는 마귀들을 지킨다는 것은 찰나의 빈틈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군다리(軍荼利)보살은 무수히 들고 나는 마귀를 지키다가 깜빡 졸았다. 그 순간에 들어닥친 마귀들이 인간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인간에게 마귀행위를 자행케했기 때문에 군다리(軍荼利)보살은 큰 칼을 빼들고 지상에 내려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닭신(雞神)이 되었다. 선을 지키고

카) 정취(正趣)보살과 개신(戌神) : 별나라의 신들이 모일 때 마다 서로 흥겹도록 예술을 연출하여 심오한 신비경을 펼쳐주는 보살이다. 별나라 신들의 흥겨움을 위해 온갖 예술을 연출해 내야하는 정취(正趣)보살은 자신의 취향에 빠져 몰두한 탓에 별나라 신들이 모두 깨어나 불평을 늘어놓고, 또 불화 생기므로 아미타(阿彌陀)부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어 인간세상에 오게 되었다. 지상에 내려와 개신(狗神)이 되어 예술을 연출하는데 몰두하여 풍요로움을 지니게 된다.

타) 아미타불과 돼지신(亥神) : 우주의 본원인 시간과 공간의 주역으로 모든 별나라의 신들과 보살을 지휘 감독하는 아미타 부처님이다.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연장되어야 하며, 인간들에게 부여해야 할 공간의 한계는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지상에 내려와 돼지신(猪神)이 되었다. 돼지신(猪神)은 우주의 본원인 시간과 공간의 주역인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하여 창조와 책임을 발휘하게 된다. 경기 불교

1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1,765,02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염규용, 윤광숙, 장명순, 이기원, 조권형,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윤영무, 정무근,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구광국, 현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정효진, 정해영,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양희선, 박진배, 조정자, 김경수,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진기홍, 정현숙, 차용희, 이상남, 정경화, 서의호, 박영희,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어윤식, 정재안, 신윤식, 박홍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김덕희, 장선희, 주인수, 조미옥, 박종삼, 이수교, 용희순, 백종복, 김혜자, 김묘정, 신연자, 이경원, 손용식, 한복반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백제의 향기 서산 부석사, 간월암, 마애삼존불 답사를 마치고..

사찰답사반원/정심행/홍인숙

황금돼지해에 모든 불자님들의 건강과 소원성취 원하오며, 1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2월 답사로 예정 되었던 것이 기상조건으로 인해 이번 1월 답사로 미루어짐에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지 지금도 가슴이 벅차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인연이라 하나 봅니다. 지난달에는 학기말 시험으로 인해 갈 수 없었다가 시간이 되어 참여하게 됨이 아마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느껴집니다.

새벽 찬 기운이 불 땀을 스쳐 살살 피해감이 아직도 엄동설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싶지만 머지않아 입춘의 기운을 기다리며 희망을 안고 새벽길 출발하여 마음 설레며 기다렸던 답사지로 향했습니다. 못갈 뻔했던 곳이라 얼마나 더 설레었는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외딴 섬에 위치하고 있는 간월도의 간월암!

1980년에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물이 된 섬이다. 천수만 한가운데 떠있던 바위섬으로 예전에는 굴양식 배나 드나들던 외딴 섬이었으나 지금은 어리굴 것이 많이 나는 육지 관광지로 변모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까지 물이 들면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물이 되는 간월암이 간월도에 딸린 작은 돌섬위에 자리 잡고 있어 섬다운 정취를 풍긴다. 조선 초 무학대사가 창건한 무학사터에 일제 침략시대인 1914년 수덕사 주지였던 만공선사가 중건했다고 한다.

성산 주지스님의 법문으로 간월암이라 명하기 이전에는 피안사라 하였으며 무학대사께서 달을 보고 도를 깨쳤다하여 간월도의 간월암이라 명하였는데, 달을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듯 내가 있어 온갖 것이 생긴다고 진리를 알고, 본래 허공은 하나다(불구부정)라는 것을 알고 보면 도에 이르러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좋은 곳을 보고 감탄사에 스님의 법문까지!...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두 번째 도착한 곳은 부석사!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195호로 지정되었다.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 자락에 있으며, 677년(문무왕17)에 의상대사가 세우고 무학대사가 중수하였다. 신라 제28대 임금, 진덕여왕 4년 서기 650년에 “복흥사”라는 절에 의상대사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큰 뜻을 품고 당나라에 들어가 지엄법사라는 노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선묘낭자라는 예쁜 처녀가 의상대사를 흠모하게 되었다. 의상대사는 불도를 닦는 사람이라 불가함을 설명하자 선묘낭자는 죽을 것을 결심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먼 훗날 바위가 된 것을 알고 의상대사는 그 바위가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하여 그 용이 다시 바위로 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바위는 훌쩍 날아가 절에서 바로 보이는 바다에 떠있으면서 절 짓는 공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돌을 물위에 떠있다 해서 “부석”이라고 이름 지었으며, 절 이름도 “부석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대표적 유물로서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충암절벽에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있다. 흔히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애불은 암벽을 조금 타고 들어가 불상을 조각하고 그 앞쪽에 나무로 집을 달아 만든 마애석굴 형식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리고 이곳은 백제 때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중심지인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므로 이 마애불은 당시의 활발했던 중국과의 문화교류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어서 보원사지(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를 답사했다. 신라말~ 고려초에 상왕산 북쪽에 있던 절터이다. 이곳에 있던 석조(보물102호), 당간지주(보물103호), 5층석탑(보물104호), 법인국사 보승탑(106호)등과 그밖에 석로 만든 불상이 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내가 알게된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의 보물이자 유물들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어 더욱 기뻐다. 선조들의 이런 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런지 생각해본다. 이런 조각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고, 후대의 삶의 지표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임에 선조들의 자랑스러움이 더욱 커져 새해 첫달의 시작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 더 없이 행복했다. 부석사에서 주경스님 법문에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 성산스님의 법문 또한 같은 의미, 부처님의 법인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의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든 불자님들 성불하세요!

정기
불교

기본교리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개월, 5만원)
- 지도강사 - 전문포교사
- 내용 - 부처님의 일대기의 사찰구조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 212-0033
HP 018-313-3838



경불원 소식

● 백인에게들는다
(마흔다섯번째)

불기2551(2007)년 1월 16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정명스님의 "신통이나 기적에 얽매이지 않는 불자"를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1월 사찰답사

(서산 부석사, 간월암,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1월 사찰답사는 간월암, 서산부석사, 마애삼존불, 보원사지에 다녀왔습니다.

● 성도재일 행사

불기 2551년(2007)1월26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1월25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 여주교도소교정
협의회 정기총회

2551(2007)년2월 1일 (오후 5시)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용주사 용건능일대 효문화권역 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2551(2007)년 1월 24일 용주사 용건능일대 효문화권역 지정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 신행상담 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상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 용전화는 031)251-1083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교상담개원 (02)737-8803)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 3월의 행사안내

3/17(토) 오후2시 30분 활환스님(한정석법사) 열린법회

3/17(토) 오후5시 정기총회

- 전년도 행사집행 보고 및 임원 개선

- 결산보고 및 예산안 심의

3/18(일) 오전 7시 사찰답사

- 오대산 상원사(예정)

교/계/소/식

▶ 한중국제도자교류전 2월 7일부터 열려

한국전통도자예술전 '중국 당대 자사차호 작품전'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2월 7~14일 대구 대백플라자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중도자문화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 한국학연구소장)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한국 전통도자예술전'과 '중국 당대 자사차호 작품전'으로 이뤄진다.



▶ 생명력있는 '참살이 문화' 선도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출범

'사찰음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정한 몸과 마음을 이루고자 한다.' 사찰음식의 보존과 전승을 표방하고 종단사람 최초로 전통사찰음식 문화보존회(회장 선재스님)가 지난 1월 29일 출범했다.



▶ 용주사 거사회 제2대 회장 취임

1월 14일(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주지 정호근스님 및 여러 사중스님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용주사 거사회 제2대 장명순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수원포교당 거사회 회장 선출

1월 30일(토), 수원포교당 거사회 회장으로 김완기거사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베스트 불서 10권 -

1. 오늘부처의 일기를 써라/원혜스님저/은행나무
2. 반야심경/한암대원/현대불교신문사
3. 운명의변화(요범사훈)/정공법사의 공저/불일출판사
4. 내어린시절의황금빛추억/오소라즈니쉬/계몽사
5. 금강경잔해/연등고불/명지사
6. 참선교육3/현담/선
7. 들앞에жат나무/보봉 도우 방남수/화남출판사
8. 일본불교의빛과그림자/김호성/장우서적
9. 예수가석가를만나다/이명권/코나투스
10. 아행가요가/BKS아행가/선요가

2007년도상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7년 1월 ~ 3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5개강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7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정엄스님	20명	5주 50,000원	천수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9개강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수시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웰빙요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3/6개강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7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성정스님	100명	무료	"기도와 발언"	2월 10일 오후 2시30분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80,000원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2월 24일 오전 10시 출발 1박 2일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